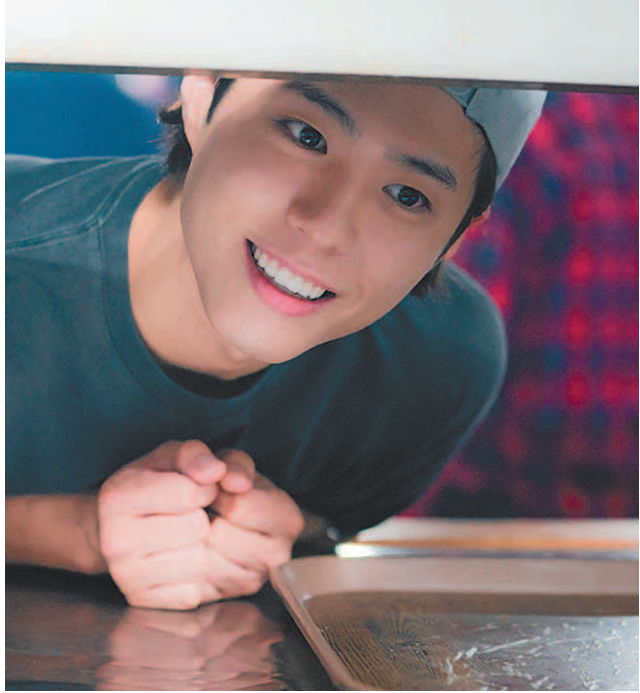




‘나쁜 남자’… 예쁜 남자… 잘생긴 남자… 신하균, 박보검, 현빈(왼쪽부터)이 자신들의 매력을 앞세워 여심을 자극하고 있다.

사진제공 | MBC·tvN

섹시 vs 달달 vs 심쿵…3인3색 눈호강

연기자 신하균, 현빈, 박보검이 저마다 다른 매력으로 안방극장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은 각각 주연 중인 드라마에서 형사, 공학박사, 신입사원의 캐릭터로 등장해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들의 연기와 내공에서 뿜어져 나오는 ‘3인 3색’의 매력 덕분에 “요즘 드라마는 볼 게 없다”는 시청자 원성도 단숨에 사라졌고, 오랜만에 안방극장도 활기를 띄고 있다.

신하균은 시작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3일 첫 방송한 MBC 월화드라마 ‘나쁜형사’에서 형사 역할을 맡고 카리스마 연기를 선보였다. 극중 신하균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범인은 잡고 만다’는 원칙을 내세워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험한 인물이다. 첫 회에서도 살인범을 잡기 위해 탈법도 서슴지 않으며 폭탄을

월·화 ‘나쁜형사’ 신하균
수·목 ‘남자친구’ 박보검
토·일 ‘알함브라…’ 현빈

거칠고 냉철한 연기로 섹시한 남성미 배시시 웃으면 여성 시청자 무장해제 카리스마와 유머 모두 갖춘 로코장인

실은 기관차처럼 폭주했다.

거칠고 냉철한 인물을 표현하는 신하균만의 다양한 표정까지 곁들여 보는 재미를 더했다. 또 ‘날렵한 몸에 딱 떨어지는 슈트를 입은’이라는 캐릭터 설명 그대로 겹겹 슈트에 하얀 셔츠를 입은 모습으로 남성미를 뽐내기도 했다.

신하균의 압도적인 연기 덕분에 드라마는 같은 날 동시에 출발한 경쟁 드라마를 제치고 최고 8.3%(닐슨코리아)의 시청률로 1위에 올랐다. 직전 방영작인 ‘배드파파’가 평균 2%의 시청률을 보였

던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박보검은 ‘청포도’ 같은 청량감으로 ‘누나’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tvN 수목드라마 ‘남자친구’에서 사회초년생인 진혁 역을 맡았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지만 긍정적인 사고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의 청춘이다. 박보검이 트레이드마크인 고른 치아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으면 여성 시청자들의 입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반응이 팬히 나온 게 아니다. 특히 ‘연하남’이라는 설정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이 더욱 뜨

거워지고 있다. 박보검이 극중 상대역인 송혜교에게 술주정을 부려도 마냥 귀엽기만 하다. 송혜교를 향해 미소 지으며 눈인사 하는 모습은 티 없이 맑다. 싱그러운 주인공의 통통 튀는 매력으로 어필하면서 드라마는 방송 2회 만에 시청률 10%를 돌파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오랜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온 현빈의 매력도 여심을 흔들기 충분했다. tvN 토일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에서 공학박사이자 투자사 대표 유진우 역을 맡은 그는 ‘로맨틱 코미디 장인’답게 카리스마와 유머러스함을 동시에 선사했다. 중저음의 내레이션도 또 다른 재미를 안긴다. 여기에 국내 최초 증강현실(VR) 소재를 다루며 현실과 게임 공간을 오가는 독특한 설정으로 흥미로움을 더하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해시태그 컷



몸매가 너무 이기적이야

연기자 이다희가 모델 못지않은 완벽한 몸매를 과시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여행 중인 그는 구엘공원에서 한껏 포즈를 취하고 있다. 워낙 키가 커서 긴 다리는 더더욱 길어 보인다. 이 사진의 키포인트는 뒤편 뒀니 해도 턱을 살짝 괴고 있는 포즈. 팬들은 “도발적이다” “섹시미 절절” 등 반응을 한다.

백솔미 기자

#스포츠포아 #이다희 #통다리 #각선미 #이기적몸매

종현 추모 예술제 개최

빛이나 재단, 17일 팬 콘텐츠 전시

지난해 12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샤이니 멤버 종현을 추모하는 예술제가 열린다.

4일 재단법인 ‘빛이나’에 따르면 17일 오후 서울 삼성동 SM타운 씨어터에서 제1회 빛이나 예술제 ‘네가 남겨준 이야기, 당신이 채워갈 이야기’가 개최된다. 행사를 진행하는 재단법인 빛이나는 고 종현의 가족이 뜻을 모아 9월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18일 종현의 사망 1주기를 맞아 팬들과 함께 고인을 추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최 측은 앞서 11월부터 예술제 포스터 디자인부터 종현의 생전 영상 편집, ‘종현이 당신에게 남겨준 이야기, 당신이 채워갈 이야기’라는 주제로 글쓰기, 사야니의 ‘네가 남겨둔 말’과 종현의 자작곡의 대화 형식 영상 편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팬들에게 콘텐츠를 모집했다. 각 항목별로 최종 선정된 작품만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주최 측은 재단이 비영리 단체이고, 종현과 같은 길을 걷는 젊은 문화예술인을 돕기 위해 설립된 만큼 입장권 등은 유료로 판매하지 않는다. 예술제에 응모한 팬들 가운데 최종 선정된 인원 150명에게 초대권을 증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팬들은 종현을 영원히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종현이 생전 완성한 유작 앨범인 ‘포에트 | 아티스트’(Poet | Artist)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다. 앨범은 올해 1월 말 발매되어 재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팬들의 적극적인 구매 의지 등으로 일정 수량 재발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팬들은 수익금이 재단법인 빛이나 측으로 전달되는 만큼 좋은 일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동구매에 참여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스윙 베이비~’ 도경수가 안방극장을 넘어 영화 ‘스윙키즈’로 잇단 흥행에 도전한다. 5일 개봉한 영화는 1951년 거제 포로수용소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종의 청년들이 탭댄스단 스윙키즈를 결성하는 과정을 그린다. 극중 로기수 역을 맡은 도경수는 촬영 전 5개월에 거쳐 탭댄스를 배웠다. 개봉에 앞서 강형철 감독, 박혜수, 도경수, 오정세(왼쪽부터)가 4일 서울 용산 CGV에서 열린 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도경수 리듬감…세계적 탭댄서와 견줘도 지지 않네

영화 ‘스윙키즈’ 첫 공개

탭댄스 스타 그라임스와 춤대결
처음엔 몸치, 5개월 죽도록 연습

도경수의 탭댄스는 현란했다. 이념의 극한대립 속 피어난 인간애가 탭댄스의 무대 위 빈 공간을 가득 채웠다.

12월 스크린이 기대작들의 맞대결로 후끈 달아오를 전망인 가운데 그 포문을 연 ‘스윙키즈’가 4일 선보였다. 19일 개봉하는 영

화는 1951년 거제 포로수용소의 인민군 포로 로기수가 우연히 탭댄스의 매력에 빠져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한국전쟁의 참화 속 친공·반공포로들의 살육전이 벌어진 포로수용소에서 도경수를 비롯한 오정세 등 탭댄스 공연에 나서서 포로 댄스팀의 이야기다.

그룹 엑소 멤버이자 연기자인 도경수는 고난이도의 탭댄스를 추며 무대 위를 날아다닌다. 특히 극중 미군으로 댄스팀을 이끄는 역할을 연기한 세계적인 탭댄서 자레드 그라임스와 춤 대결을 펼치며 타고난 리

듬감을 과시했다. 도경수는 이날 서울 CGV 용산에서 열린 시사회 뒤 “배우들과 5개월 동안 탭댄스를 연습했다”면서 “가수로서 춤을 추어도 처음에는 생소했다. ‘몸치’였다”며 웃었다.

한편 이날 ‘스윙키즈’의 첫 시사회를 시작으로 같은 날 개봉하는 ‘마약왕’, 26일 선 보이는 ‘PMC:더 병커’ 등 12월 한국영화 기대작은 물론 5일 공개되는 ‘모탈 엔진’을 비롯해 ‘아쿠아맨’, ‘범블비’ 등 외화 블록버스터의 흥행 대결을 위한 레이스가 본격화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이 드라마

올드 미스 다이어리

지현우 촌데레 매력에 푹 연상연하 멜로물 대표작

연상녀와 연하남의 로맨스!

현재 방송중인 tvN 드라마 ‘남자친구’는 내용뿐만 아니라 주연한 송혜교와 박보검의 나이 차도 상당한 관심거리다. 방송 중 ‘송혜교 나이’라는 키워드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등장할 정도니까, 실제 12살 차이 두 사람은 극중에서도 연상연하 커플이라는 설정아래 멜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최근 종영한 ‘나인틴’에서 주연으로 나선 김희선과 김영광도 10살이 넘는 나이차를 극복하고 연인으로 호흡을 맞췄다. 내년 1월에는 이나영과 이종석이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을 통해 연상연하 커플로 등장한다.

연상녀, 연하남의 멜로 연기를 이야기할 때 첫 손가락에 꼽는 드라마가 있다. 2004년 방송한 KBS 2TV 드라마 ‘올드미스 다이러리’. 노처녀의 일과 사랑을 이야기한 드라마에서 예지원은 노처녀 라디오 DJ 역을 맡았고, 지현우는 당당 프로그램 PD로 등장했다. 당시만 해도 여성이 서른 살만 넘어도 ‘노처녀’ 소리를 들었던 시절이었던 만큼 예지원의 캐릭터는 전형적인 ‘노처녀’로 그려졌다. 실제 두 사람은 11살의 나이 차이가 났지만 극중에서는 격차를 확 줄여 3살 터울로 캐릭터를 설정했다.

지현우는 ‘촌데레’(겉으로는 툴툴거리지만 속으로는 챙기는) 매력으로 중무장하고 누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연상연하 커플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공통점은 연상녀는 대부분 부와 명예는 물론 실력까지 겸비한 캐릭터이고, 연하남은 젊음의 상징인 패기와 싱그러움을 무기로 내세운다. 20대는 물론 40~50대까지 넓은 시청층을 확보하기 좋다.

백솔미 기자